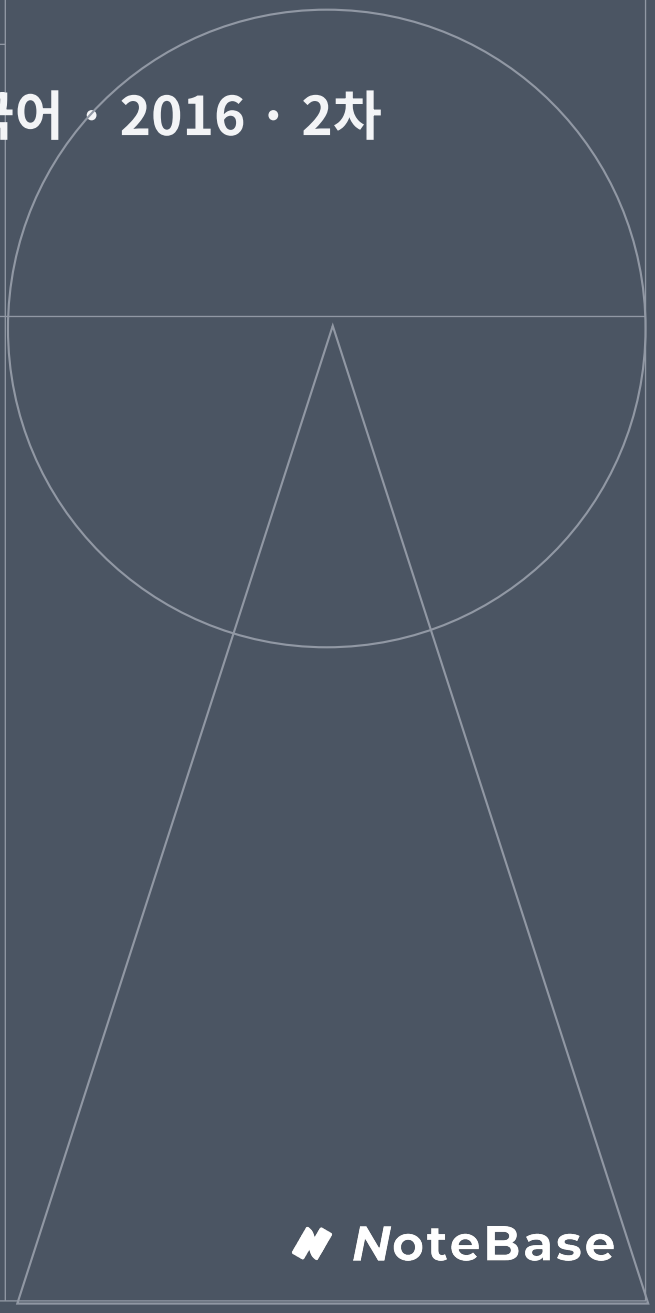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6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6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6 · 2차

문 1. 우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대 국어의 표준어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② 우리말의 자음 체계에서 '비음'과 '유음'의 분류는 조음(調音) 위치에 따른 것이다.

③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우리말 품사 중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는데 대답할 때 쓰는 '예, 아니요'가 그 예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대 국어의 음운, 문장 구조, 품사에 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소리의 길이: 표준 발음에서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음운적 요소이다.
자음의 분류: 소리가 나는 자리인 조음 위치와 소리를 내는 방식인 조음 방법을 구별한다. 비음과 유음은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앞 절과 뒤 절이 조건·원인·목적 등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어 한 절이 다른 절에 딸리는 문장이다.
감탄사: 느낌이나 부름, 대답을 나타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품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현대 국어의 표준 발음에서는 소리의 길고 짧음으로 단어의 의미가 구별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X. 틀린 표현은 '조음 위치에 따른 것'이다. 비음과 유음은 공기가 흐르는 방식에 따른 명칭이므로, 올바르게는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③ O.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은 뒤 절의 일이 성립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절이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O.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으며, 대답을 나타내는 '예'와 '아니요'는 감탄사의 예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조음 위치'가 함정이다. 비음·유음은 입술소리·잇몸소리·목청소리처럼 발음 기관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과 혀의 작용 등 소리를 내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음 분류에서 '어디에서 소리 나는가'는 조음 위치, '어떻게 소리 내는가'는 조음 방법으로 판단한다.
비음·유음은 '어떻게'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비음·유음은 위치가 아니라 방법이다.

NoteBase

문 2.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말의 단어 형성 유형을 우선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고, 다시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합성어의 예로는 ( )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된다.

① 흙내(명사)

② 저녁내(부사)

③ 끝내(부사)

④ 막내(명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합성어인지 먼저 판별한 뒤, 받침의 발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모두 적용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고,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의 자음이 대표음 가운데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이고, 비음화는 비음 앞의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흙내'는 명사 '흙'과 명사 '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흙내'는 받침 'ㄺ'이 'ㄱ'으로 발음된 뒤, 그 'ㄱ'이 뒤의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흥내]로 발음된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차례로 적용된다는 조건에 맞는다.

② X — '저녁내'의 '-내'는 '그 기간 내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저녁내'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이다. 또한 '저녁내'는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저녕내]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적용되지만, 받침 'ㄱ' 자체가 다른 대표음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새로 적용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저녁내는 파생어이며 발음에서 비음화가 적용된다'이다.

③ X — '끝내'의 '-내'도 접미사이므로 '끝내'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이다. 발음은 '끝'의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뀐 뒤 'ㄷ'이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어 [끈내]가 되므로 두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만, 합성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끝내는 파생어이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된다'이다.

④ X — 현대 국어의 공시적 관점에서 '막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로 처리하므로 합성어가 아니다. 발음도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에 따라 [망내]가 되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새로 적용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막내는 단일어이며 발음에서 비음화가 적용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 ‘끝내’는 [끈내]로 발음되어 두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므로 정답처럼 보이지만, 접미사 ‘-내’가 결합한 파생어라는 점에서 탈락한다. ②와 ④는 [저녕내], [망내]처럼 비음화는 나타나지만 앞말의 받침 ‘ㄱ’이 이미 대표음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어근끼리 결합했는지 또는 접사가 결합했는지를 판별하고, 그다음 표기된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는지와 그 대표음이 뒤의 ‘ㄴ’·‘ㅁ’ 앞에서 다시 비음으로 바뀌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흙+내는 합성어이고 [흥내]로 발음된다. 끝+내는 [끈내]이지만 접미사 ‘-내’가 붙은 파생어이다.

NoteBase

문 3. 다음 단어의 로마자 표기나 외래어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수락산 ⇒ Suraksan

② 오죽헌 ⇒ Ojukheon

③ ambulance ⇒ 앰뷸란스

④ 毛澤東 ⇒ 마오쩌둥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와 외래어 표기는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므로, 각 단어의 공인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의 표준 발음을 로마자로 적는 규정이고,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의 소리를 정해진 한글 표기로 옮기는 규정이다. 우리 고유 명칭인 '수락산'과 '오죽헌'에는 로마자 표기법을, 영어 'ambulance'와 중국 인명 '毛澤東'에는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락산'의 로마자 표기는 'Suraksan'이다. 지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하나의 명칭으로 붙여 쓴 표기가 맞다.
② O — '오죽헌'의 로마자 표기는 'Ojukheon'이다. 우리 문화재 명칭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옮긴 형태가 맞다.
③ X — 틀린 표현은 '앰뷸란스'이다. 영어 'ambulance'의 규정 표기는 '앰뷸런스'이므로 '란'을 '런'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중국 인명 '毛澤東'은 중국어 발음에 따라 '마오쩌둥'으로 적는다. 한자음인 '모택동'이 아니라 현지음을 따른 외래어 표기가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철자 'a'에 끌려 '앰뷸란스'로 적기 쉽지만, 외래어 표기는 영어 철자를 한 글자씩 옮기는 방식이 아니다. 정해진 표기인 '앰뷸런스'를 써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우리말 고유 명칭인지 외국어인지 구분한다. 우리말 고유 명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공인형을 확인하고, 외국어는 원어 철자의 모양이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한글 표준형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수락산은 Suraksan, 오죽헌은 Ojukheon, ambulance는 앰뷸런스, 毛澤東은 마오쩌둥이다.

NoteBase

문 4. 다음 문장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수정한 것은?

희노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① 희노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② 희로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③ 희노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④ 희로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자음의 표기와 '함께하다', 조사 '같이', 부사 '한번', '놀러 오다'의 띄어쓰기를 종합하여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희로애락'은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뜻하는 한자어의 바른 표기이다. '함께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활용형 '함께하며'도 붙여 쓴다. '가족같이'의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한번'은 여기서 횟수 한 번을 세기보다 어떤 기회에 시험 삼아 해 보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붙여 쓴다.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러'가 붙은 '놀러'와 뒤의 동사 '오다'는 '놀러 오다'로 띄어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희노애락’, ‘함께 하며’, ‘놀러오라고’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희로애락’, ‘함께하며’, ‘놀러 오라고’로 쓴다. 따라서 전체 문장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가족같이 지내던 친구가 한번 놀러 오라고 연락을 했다.’가 된다.

② X
‘함께 하며’, ‘가족 같이’, ‘한 번’, ‘놀러오라고’가 틀렸다. 이 문맥에서는 각각 ‘함께하며’, ‘가족같이’, ‘한번’, ‘놀러 오라고’로 써야 한다. 따라서 전체 문장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가족같이 지내던 친구가 한번 놀러 오라고 연락을 했다.’가 된다.

③ X
‘희노애락’, ‘가족 같이’, ‘한 번’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각각 ‘희로애락’, ‘가족같이’, ‘한번’이다. 따라서 전체 문장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가족같이 지내던 친구가 한번 놀러 오라고 연락을 했다.’가 된다.

④ O
‘희로애락’의 표기가 맞고, 한 단어인 ‘함께하다’의 활용형 ‘함께하며’는 붙여 쓴다. 조사 ‘같이’가 쓰인 ‘가족같이’와 부사 ‘한번’도 붙여 쓰며, ‘놀러 오다’는 띄어 썼으므로 모든 표기가 바르다.

오답 포인트

‘노여움’이라는 뜻에 이끌려 ‘희노애락’으로 쓰거나, 모든 ‘한 번’을 횟수를 나타내는 수 관형사와 의존 명사로 보아 띄어 쓰기 쉽다. 또한 조사 ‘같이’는 앞말에 붙이고, 서로 다른 용언인 ‘놀러 오다’는 띄어 쓴다는 점을 반대로 처리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굳어진 한자어의 표준 표기인 ‘희로애락’을 확인한다. 이어 사전에 한 단어로 오른 ‘함께하다’의 활용형은 붙이고, ‘~처럼’의 뜻인 조사 ‘같이’는 앞말에 붙인다. ‘한번’이 횟수보다 ‘어떤 기회에 시험 삼아’의 뜻이면 붙이며, ‘-러’가 붙은 앞 동사와 뒤 동사는 ‘놀러 오다’처럼 띄어 쓴다.

암기 포인트

희로애락 · 함께하며 · 가족같이 · 한번은 붙임, 놀러 오다는 띄어쓰기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밑줄 친 차자 표기의 방식이 다른 하나는?

善化公主主隱	善化公主니믄
他㉠密㉡只嫁良置古	놈 그스지 얼어 두고
薯童房乙	맛둥바올
夜㉢矣卯乙抱㉣遣去如	바미 몰 안고 가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향찰에서 한자의 뜻을 빌리는 훈차와 한자의 소리를 빌리는 음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훈차는 한자의 뜻인 새김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방식이고, 음차는 한자의 소리를 빌려 우리말의 음을 적는 방식이다. 향찰에서는 대체로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휘 형태소를 훈차하고, 조사·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를 음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 '密'은 '그윽이·몰래'라는 실질적 뜻을 나타내도록 한자의 뜻을 빌린 훈차이다. 나머지 세 글자의 음차와 표기 방식이 다르다.

② X — ㉡ '只'는 '지'라는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한자의 음을 빌린 음차이다. '훈차'가 아니라 ㉢·㉣과 같은 음차로 고쳐 판단한다.

③ X — ㉢ '矣'는 '밤에'의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를 적은 음차이다. '훈차'가 아니라 ㉡·㉣과 같은 음차로 고쳐 판단한다.

④ X — ㉣ '遣'은 '안고'의 연결 어미 '-고'를 적은 음차이다. '훈차'가 아니라 ㉡·㉢과 같은 음차로 고쳐 판단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한자의 현대 독음만 비교하면 '矣'나 '遣'의 기능을 놓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해당 글자가 문장에서 실질적 뜻을 나타내는지, 조사·어미의 소리를 나타내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 '密'만 의미를 담당하는 훈차이고 ㉡ '只', ㉢ '矣', ㉣ '遣'은 문법 형태소를 적은 음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차자 표기가 대응하는 우리말 부분을 찾은 뒤, 어근처럼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면 훈차, 조사·어미처럼 문법적 기능을 하는 소리를 나타내면 음차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향찰의 기본 원리는 '실질 의미는 훈차, 조사·어미는 음차'이다. 이 문항에서는 密만 훈차이고 只·矣·遣은 음차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ᄒᆞ : 뮐•씨
> ㉡곶 : 됴•코 여•름 •하ᄂᆞ•니
> ᄒᆞ : ᄉᆡ•미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씨
> ㉣ :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① ㉠에는 주격 조사와 만나 형태가 변한 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② ㉡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당시의 표기법에는 어긋난다.

③ ㉢에는 현대 국어의 명사 '가물'의 옛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④ ㉣에서 조사가 생략되었다면 '내'의 형태로 쓰였을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세 국어의 특수한 체언 교체, 종성 표기, 이어적기, ㅎ 종성 체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나모'는 환경에 따라 '나모/남ㄱ'으로 형태가 교체되는 명사이다. ㉠ '남간'은 '남ㄱ'에 보조사 'ㄴ'이 붙은 형태이지 주격 조사가 붙은 형태가 아니다.
이어적기는 받침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적는 방식이다. '가믈+애'가 '가므래'로 적힌 것이 그 예이다.
'내ㅎ'처럼 끝에 ㅎ을 가진 체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으면 ㅎ이 드러나지만, 단독으로 쓰이면 ㅎ이 드러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 '남간'에는 명사 '나모'의 교체형 '남ㄱ'과 보조사 'ㄴ'이 결합해 있다. 틀린 표현은 '주격 조사와 만나'이다. 올바르게는 '보조사 ㄴ과 만나 형태가 변한 명사가 포함되어 있다'이다.
② O — ㉡ '곶'은 실제 종성 소리가 [ㄷ]으로 나지만 어간의 종성 ㅈ을 밝혀 적었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종성을 적는 방식에는 어긋난다.
③ O — ㉢ '가므래'는 현대 국어 명사 '가물'의 옛 형태인 '가믈'에 조사 '애'가 붙어 이어적기 된 형태이다.
④ O — ㉣ '내히'는 ㅎ 종성 체언 '내ㅎ'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조사가 생략되어 단독으로 쓰였다면 ㅎ이 드러나지 않아 '내'로 적혔을 것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의 형태 변화만 보고 뒤의 'ㄴ'을 주격 조사로 오인하기 쉽다. 'ㄴ'은 보조사이고, '나모'가 '남ㄱ'으로 교체된 뒤 결합한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체언의 형태가 달라졌을 때에는 먼저 원형과 조사 종류를 분리한다. '나모/남ㄱ'의 교체, 모음 조사 앞의 이어적기, ㅎ 종성 체언에서 ㅎ이 드러나는 환경을 각각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남간'은 남ㄱ+보조사 ㄴ, '가므래'는 가믈+애의 이어적기, '내히'는 내ㅎ+이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중 한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한글은 창제 당시 28개의 기본자 중 17개가 자음자였으며 모음자 중 4개는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② 한글은 소리 문자이지만 일본의 '가나'와 다른 음소 문자로서 개별 글자가 하나의 음소에 모두 일대일로 대응된다.

③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글 자모 명칭은 같지만 사전에 올릴 때에 사용하는 한글 자모 순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④ 'ㄱ<ㅋ<ㄲ'과 같이 소리의 세기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 과정에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글 창제 당시의 자모 체계와 제자 원리, 현대 남북한 자모 체계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는 자음자 17자와 모음자 11자를 합한 28자였다. 모음자 가운데 ㅑ, ㅕ, ㅛ, ㅠ는 각각 ㅏ, ㅓ, ㅗ, ㅜ에 소리 하나가 더 결합된 이중모음을 나타냈다. 자음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과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 등을 통해 확장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창제 당시 28자 가운데 자음자는 17자, 모음자는 11자였고, 모음자 ㅑ·ㅕ·ㅛ·ㅠ 네 자는 이중모음을 나타냈으므로 알맞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개별 글자가 하나의 음소에 모두 일대일로 대응된다'이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지만 글자와 음소가 언제나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ㅇ은 초성에서는 소릿값이 없고 종성에서는 '응'의 끝소리를 나타낸다.
③ X — 틀린 표현은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글 자모 명칭은 같다'이다. 남북한은 자모의 명칭과 사전 배열 순서에 모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의 '기역·디귿·시옷'을 북한에서는 '기윽·디읃·시읏'이라고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ㄱ<ㅋ<ㄲ 전체에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부분이다. ㅋ은 ㄱ에 획을 더한 가획자이지만, ㄲ은 ㄱ을 나란히 쓴 병서로 만든 글자이므로 ㄲ까지 가획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④에서 ㅋ과 ㄲ이 모두 ㄱ보다 강한 소리라는 점만 보고 둘의 제자 원리까지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ㅋ은 가획, ㄲ은 병서라는 차이가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글 관련 선지는 ‘창제 당시 자모 수’, ‘음소 문자라는 성격’, ‘남북한의 명칭과 배열’, ‘가획과 병서’를 각각 분리해 확인한다. 특히 소리의 관계와 글자를 만든 방식은 같은 기준이 아니므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창제 당시 28자 = 자음 17자 + 모음 11자, ㅋ은 가획, ㄲ은 병서이다.

NoteBase

문 8.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① 이런 날씨에 비를 맞추니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나지.

② 너라면 아마도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③ 우리 선수는 마지막 화살까지도 10점 과녁에 맞췄다.

④ 그는 그녀와의 약속 시간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와 발음이 비슷한 '맞다', '맞히다', '맞추다'의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맞다'는 비나 눈처럼 오는 것을 몸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맞히다'는 문제의 답을 옳게 고르거나 물체가 목표에 닿게 한다는 뜻이다. '맞추다'는 둘 이상의 대상을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맞게 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비를 몸으로 받는다는 뜻이므로 '맞추니'가 아니라 '맞으니'가 올바르다. 문장은 '이런 날씨에 비를 맞으니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나지.'로 고친다.
② X — 문제의 정답을 알아맞힌다는 뜻이므로 '맞출'이 아니라 '맞힐'이 올바르다. 문장은 '너라면 아마도 그 문제의 정답을 맞힐 수 있었을 텐데.'로 고친다.
③ X — 화살이 과녁에 닿게 한다는 뜻이므로 '맞췄다'가 아니라 '맞혔다'가 올바르다. 문장은 '우리 선수는 마지막 화살까지도 10점 과녁에 맞혔다.'로 고친다.
④ O — 약속 시간이라는 기준과 실제 행동의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은 '시간을 맞추다'라고 하므로 '맞춘'의 쓰임이 올바르다.

오답 포인트

'정답을 맞추다', '과녁에 맞추다'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답을 옳게 고르거나 목표물에 명중하게 하는 뜻에는 '맞히다'를 쓰고, 시간이나 기준을 일치시키는 뜻에는 '맞추다'를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몸으로 비·눈을 받으면 '맞다', 답이나 목표에 적중하면 '맞히다', 시간·간격·기준을 서로 일치시키면 '맞추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는 맞고, 정답과 과녁은 맞히며, 시간과 기준은 맞춘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러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② 선생님, 제 말씀부터 좀 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③ 정성이 이 정도라면 여간한 성의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④ 선생님, 선생님께 훈장이 추서됐으니 수여식에 참석하시래요.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사동 표현, 높임 표현, 관용 구문, 어휘의 의미를 구별하여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이며, 사동의 뜻이 필요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쓰지 않는다. '여간'은 보통 정도를 뜻하지만 주로 부정 표현과 어울려 '보통이 아닐 만큼 매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추서'는 죽은 뒤에 관등이나 훈장 등을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소개시켜 줘'는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을 직접 소개해 달라는 문맥에 불필요한 사동 표현 '시키다'를 쓴 것이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O
'제'는 말하는 사람을 낮추고, '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는 상대방인 선생님을 높이면서 부탁을 완곡하게 나타낸다. 문맥과 높임 표현이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③ X
'여간한 성의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는 큰 정성을 나타내려는 문맥에 '여간'의 관용적 쓰임이 맞지 않는다. '정성이 이 정도라면 여간한 성의가 아니네요' 또는 '대단한 성의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X
'추서됐으니'가 잘못된 표현이다. '추서'는 죽은 뒤에 훈장 등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수여식 참석을 요구할 수 없다. 살아 있는 선생님에게 훈장이 수여되는 상황이라면 '선생님께서 훈장을 받게 되셨으니 수여식에 참석하시라고 합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소개시키다'를 '소개하다'와 같은 뜻으로 여기거나, ④의 '추서'를 일반적인 훈장 수여로 이해하면 틀리기 쉽다. ③은 '여간'이 큰 정도를 나타낼 때 '아니다'와 같은 부정 표현과 호응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문장에서 행위 주체와 높임 대상을 먼저 확인하고, '시키다'가 실제 사동 의미를 갖는지, '여간'이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지, 한자어의 정확한 뜻이 문맥과 맞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직접 소개는 '소개하다', 큰 정도의 강조는 '여간 … 아니다', 죽은 뒤의 수여는 '추서'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문장에서 '-었-/-았-/-였-'의 문법적 기능이 밑줄 친 예와 가장 유사한 것은?

그 두 사람은 쌍둥이인 것처럼 서로 정말 닮았다.

① 모두가 기다리던 그가 밤늦게 공항에 도착하였다.
② 윤희는 예쁜 파란색 모자를 사고서는 방금 떠났다.
③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정말로 잘생겼다.
④ 결국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선어말 어미 '-었-/-았-/-였-'이 나타내는 과거,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태, 확정적으로 말하는 미래의 기능을 문맥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었-/-았-/-였-'은 보통 발화시보다 앞서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지만, 완료된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태나 미래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단정하는 뜻도 나타낸다. 제시문의 '닮았다'는 과거에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서로 닮은 상태임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도착하였다'의 '-였-'은 그가 밤늦게 도착한 사건이 발화시보다 앞서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과거의 기능이다. 틀린 분류를 바로잡으면 현재 상태가 아니라 과거 사건을 나타낸다.
② X — '떠났다'의 '-았-'은 '방금'과 호응하여 떠난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틀린 분류를 바로잡으면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과거 사건을 나타낸다.
③ O — '잘생겼다'의 '-었-'은 과거에만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생긴 상태가 현재 성립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닮았다'가 현재의 닮은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과 가장 유사하다.
④ X —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라는 미래 맥락에서 '죽었다'의 '-었-'은 앞으로 닥칠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단정한다. 틀린 분류를 바로잡으면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미래 결과에 대한 확정적 단정을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형태에 '-았-/-었-/-였-'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거로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③의 '잘생겼다'는 현재 상태를, ④의 '다 죽었다'는 미래 결과에 대한 확정적 단정을 나타낸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간 부사어와 문맥을 먼저 확인한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면 과거, 완료 결과가 지금도 성립하면 현재 상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정사실처럼 말하면 미래에 대한 확정적 단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닮았다·잘생겼다’는 현재 상태, ‘도착하였다·떠났다’는 과거 사건, ‘곧 … 죽었다’는 미래의 기정사실화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적절한 것은?

1.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u>발휘</u>할 것이요, 결코 ㉡<u>배타적</u>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u>일각</u>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1. 모든 행동은 질서를 가장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① ㉠: 發揮, ㉡: 排他的, ㉢: 一刻
② ㉠: 撥揮, ㉡: 排他的, ㉢: 一覺
③ ㉠: 發揮, ㉡: 俳他的, ㉢: 一刻
④ ㉠: 撥揮, ㉡: 俳他的, ㉢: 一覺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단어의 뜻을 확인하고, 같은 음을 지닌 한자 가운데 정확한 글자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발휘(發揮)는 재능이나 능력 등을 떨쳐 나타낸다는 뜻이다. 배타적(排他的)은 남을 배척하는 태도를 뜻한다. 일각(一刻)은 짧은 시간이나 한순간을 뜻하며, 지문의 '최후의 일각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의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 發揮, ㉡ 排他的, ㉢ 一刻은 모두 지문의 뜻과 표기에 맞는다.
② X — ㉠의 '撥揮'와 ㉢의 '一覺'이 틀렸다. 능력을 떨쳐 나타내는 '발휘'는 發揮이고, 마지막 순간을 뜻하는 '일각'은 一刻이다.
③ X — ㉡의 '俳他的'이 틀렸다. 남을 밀어내고 배척한다는 뜻의 '배타적'은 排他的이다.
④ X — ㉠ '撥揮', ㉡ '俳他的', ㉢ '一覺'이 모두 틀렸다. 올바른 표기는 각각 發揮, 排他的, 一刻이다.

오답 포인트

각 선지는 발음이 같은 發·撥, 排·俳, 刻·覺을 바꾸어 놓았다. 음만 보고 고르면 틀리기 쉬우므로 '떨쳐 나타냄', '남을 배척함', '마지막 순간'이라는 문맥의 뜻을 한자와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 표기 문제에서는 먼저 문맥 속 단어의 뜻을 확정한 뒤 각 한자의 뜻을 대조한다. '발휘=發揮', '배타=排他', '일각=一刻'의 의미 연결이 모두 맞는 선지를 고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능력은 發揮, 남은 排他, 순간은 一刻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름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여 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 병이나 받고 고깃 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츱츱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을 나꾸어 보았다.
"그만 걷을까?"

① ㉠: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② ㉡: 곤충의 한 종류로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 얼굴에 우묵한 마맛자국이 생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④ ㉣: 여러 가지 농기구를 파는 작은 가게를 일컫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의 문맥에 맞게 고유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궁싯거리다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린다는 뜻이다. 각다귀는 곤충의 이름이면서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얼금뱅이는 얼굴이 얽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드팀전은 여러 가지 피륙을 파는 가게, 곧 포목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팔리지 않은 나무꾼들이 길거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뭇거리는 상황이므로 '궁싯거리다'의 문맥적 의미와 맞는다.
② O — '각다귀'는 곤충의 한 종류이며,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장난꾼 장사꾼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의미로 쓰였다.
③ O — '얼금뱅이'는 얼굴에 우묵한 마맛자국 등이 있어 얼굴이 얽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설명이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여러 가지 농기구를 파는 작은 가게'이다. '드팀전'은 여러 가지 피륙을 파는 가게, 곧 포목점을 뜻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드팀전’의 ‘전’을 일반적인 가게로만 이해하고 농기구점으로 추측하기 쉽다. 그러나 ‘드팀’은 피륙을 뜻하므로 드팀전은 포목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선 고유어는 단어만 보고 추측하지 않고, 주변 인물의 행동과 직업 및 상황을 함께 확인한다. 특히 ‘드팀전’처럼 사라진 생활 어휘는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 정확한 뜻을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궁싯거리다=머뭇거리다, 각다귀=남을 뜯어먹는 사람, 얼금뱅이=얼굴이 얽은 사람, 드팀전=포목점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중 속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둥 치면 들보가 운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억울하게 배상을 하게 된다.

② 게도 구멍이 크면 죽는다: 분수에 지나치면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

③ 토끼 덫에 여우 걸린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의외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④ 소경이 개천 나무란다: 자기의 과실은 생각지 않고 상대만 원망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속담에 쓰인 비유적 상황과 실제 교훈이 정확히 연결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속담은 겉으로 드러난 사물이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빗대어 나타내는 사람의 태도나 세상 이치를 파악해야 한다. '기둥 치면 들보가 운다'는 직접 지목하지 않고 넌지시 말해도 관계된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억울하게 배상을 하게 된다'는 풀이가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직접 상대를 지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넌지시 말해도 관계된 사람이 그 뜻을 알아듣는다는 의미이다.
② O — 게가 드나드는 구멍도 지나치게 크면 위험해진다는 비유로, 자기 분수나 정도를 넘어서면 도리어 화를 입는다는 뜻이다.
③ O — 토끼를 잡으려고 놓은 덫에 더 큰 여우가 걸린 상황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뜻밖의 큰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④ O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개천을 탓하는 상황으로, 자기 과실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남만 원망한다는 뜻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기둥'과 '들보'를 서로 무관한 대상으로 보고 억울한 피해나 배상으로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두 부분은 한 구조로 이어져 있으므로, 한쪽을 건드리면 관련된 다른 쪽이 반응한다는 간접 전달의 비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속담의 소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앞뒤 상황의 관계를 사람의 행동에 대응시킨다. 특히 원인과 반응, 분수의 초과, 기대 밖의 결과, 책임 전가 가운데 어느 관계를 비유하는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둥을 치면 들보가 운다: 간접적으로 말해도 관계된 사람이 알아듣는다.

NoteBase

문 14. 이 글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곳 디고 새 닙 나니 녹음(綠陰)이 ᄉᆞᆯ렷ᄂᆞᆫᄃᆡ, 나위(羅幃) 젹막(寂寞)ᄒᆞ고 슈막(繡幕)이 뷔여 잇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ᄀᆞᆺ득 시ᄅᆞᆷ 한ᄃᆡ 날은 엇디 기ᄃᆞᆺ던고. 원앙금(鴛鴦衾) 벼혀 노코 오ᄉᆡᆨ션(五色線) ᄑᆞᆯ텨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ᄀᆞ니와 졔도(制度)도 ᄀᆞᄌᆞᆯ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히 빅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ᄃᆡ ᄇᆞ라보니, 산(山)인가 구ᄅᆞᆷ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쳔리(千里) 만리(萬里) 길흘 뉘라셔 ᄎᆞ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나) 건곤(乾坤)이 폐ᄉᆡᆨ(閉塞)ᄒᆞ야 빅셜(白雪)이 ᄒᆞᆫ 빗친 졔, 사ᄅᆞᆷ은ᄀᆞ니와 ᄂᆞᆯ새도 긋쳐 잇다. 쇼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 고쳐(玉樓高處)야 더욱 닐러 므ᄉᆞᆷᄒᆞ리. 양츈(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ᄃᆡ 쏘이고져. 모쳠(茅簷) 비쵠 ᄒᆡ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샹(紅裳)을 니믜ᄎᆞ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일모 슈듁(日暮脩竹)의 헴가림도 하도 할샤. 댜른 ᄒᆡ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쵸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겻ᄐᆡ 면공후(鈿箜篌) 노하 두고, 쑴의나 님을 보려 ᄐᆡᆨ 밧고 비겨시니, 앙금(鴦衾)도 ᄎᆞ도 출샤이 밤은 언제 샐고.

(다) ᄒᆞᄅᆞ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녤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나 슈졍념(水晶簾) 거든말이, 동산(東山)의 ᄃᆞᆯ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졀로 난다. 쳥광(淸光)을 쥐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븟티고져.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졈낫ᄀᆞ티 ᄆᆡᆼ그쇼셔.

(라)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젹셜(積雪)을 헤텨 내니, 창(窓) 밧긔 심근 ᄆᆡ화(梅花) 두세 가지 픠여셰라. ᄀᆞᆺ득 닝담(冷淡)ᄒᆞᆫᄃᆡ 암향(暗香)은 므ᄉᆞ일고, 황혼(黃昏)의 ᄃᆞᆯ이 조차 벼마ᄐᆡ 빗최니, 늣기ᄂᆞᆫ ᄃᆞᆺ 반기ᄂᆞᆫ ᄃᆞᆺ 님이신가 아니신가. 뎌 ᄆᆡ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ᄃᆡ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라) → (가) → (다) → (나)

④ (라) → (나) → (가) → (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각 단락에 나타난 계절 표지를 찾아 봄에서 겨울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라) 봄 — 동풍이 불어 쌓인 눈이 녹고 매화가 피어난다.
2. (가) 여름 — 꽃이 지고 새잎이 나서 녹음이 우거지며, 임에게 옷과 부채를 보낸다.
3. (다) 가을 — 서리가 내리고 기러기가 울며 달과 북극성이 보이는 가을밤의 정경이 나타난다.
4. (나) 겨울 — 천지가 막힌 듯 흰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얼어 있다.

왜 이 순서: 매화와 눈 녹는 봄, 녹음이 우거진 여름, 서리와 기러기의 가을, 백설과 얼음의 겨울이라는 계절 표지가 차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여름인데 그 뒤에 겨울인 (나)를 두고 가을인 (다)를 배치하여 계절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틀린 배열 '(가) → (나) → (다) → (라)'는 '(라) → (가) → (다) → (나)'로 고쳐야 한다.

② X — 여름인 (가) 다음에 가을인 (다)가 아니라 겨울인 (나)가 이어지고, 봄인 (라)이 그 뒤에 놓여 시간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틀린 배열 '(가) → (나) → (라) → (다)'는 '(라) → (가) → (다) → (나)'로 고쳐야 한다.

③ O — (라)의 봄, (가)의 여름, (다)의 가을, (나)의 겨울 순서로 계절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④ X — 봄인 (라) 다음에는 여름인 (가)가 와야 하는데 겨울인 (나)을 먼저 배치하였다. 틀린 배열 '(라) → (나) → (가) → (다)'는 '(라) → (가) → (다) → (나)'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단락의 정서가 모두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 의미만 따라가면 순서를 가리기 어렵다. '동풍·매화', '새잎·녹음', '서리·기러기', '백설·얼음'처럼 계절을 직접 드러내는 시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락에서 계절을 확정하는 자연물과 기후 표현을 먼저 표시한 뒤,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순서로 배열한다.

암기 포인트

매화가 피는 봄 → 녹음이 우거진 여름 → 서리와 기러기의 가을 → 백설과 얼음의 겨울이다.

NoteBase

문 15. 이 작품의 주제를 연군지정(戀君之情)이라 할 때, 각 단락에 나타난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옷 디고 새 닙 나니 녹음(綠陰)이 ᄉᆞᆯ렷ᄂᆞᆫᄃᆡ, 나위(羅幃) 젹막(寂寞)ᄒᆞ고 슈막(繡幕)이 뷔여 잇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ᄀᆞᆺ득 시름 한ᄃᆡ 날은 엇디 기돗던고. 원앙금(鴛鴦衾) 벼혀 노코 오ᄉᆡᆨ션(五色線) 플텨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ᄆᆞ니와 졔도(制度)도 ᄀᆞᄌᆞᆯ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히 빅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ᄃᆡ ᄇᆞ라보니, 산(山)인가 구롬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쳔리(千里) 만리(萬里) 길흘 뉘라셔 ᄎᆞ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나) 건곤(乾坤)이 폐ᄉᆡᆨ(閉塞)ᄒᆞ야 빅셜(白雪)이 ᄒᆞᆫ 빗친 졔, 사ᄅᆞᆷ은ᄆᆞ니와 ᄂᆞᆯ새도 긋쳐 잇다. 쇼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 고쳐(玉樓高處)야 더욱 닐러 므ᄉᆞᆸᄒᆞ리. 양츈(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ᄃᆡ 쏘이고져. 모쳠(茅簷) 비쵠 ᄒᆡ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샹(紅裳)을 니믜ᄎᆞ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일모 슈듁(日暮脩竹)의 혬가림도 하도 할샤. 댜른 ᄒᆡ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쵸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겻ᄐᆡ 뎐공후(鈿箜篌) 노하 두고, 쑴의나 님을 보려 ᄐᆡᆨ 밧고 비겨시니, 앙금(鴦衾)도 ᄎᆞ도 출샤이 밤은 언제 샐고.

(다) ᄒᆞᄅᆞ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녤 졔, 위루(危樓)에 혼자 올나 슈졍념(水晶簾) 거든말이, 동산(東山)의 ᄃᆞᆯ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쳥광(淸光)을 쥐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븟티고져.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졈낫ᄀᆞ티 ᄆᆡᆼ그쇼셔.

(라)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젹셜(積雪)을 헤텨 내니, 창(窓) 밧긔 심근 ᄆᆡ화(梅花) 두세 가지 픠여셰라. ᄀᆞᆺ득 닝담(冷淡)ᄒᆞᆫᄃᆡ 암향(暗香)은 므ᄉᆞ일고, 황혼(黃昏)의 ᄃᆞᆯ이 조차 벼마ᄐᆡ 빗최니, 늣기ᄂᆞᆫ ᄃᆞᆺ 반기ᄂᆞᆫ ᄃᆞᆺ 님이신가 아니신가. 뎌 ᄆᆡ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ᄃᆡ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① (가) - 자신의 정성을 임금에게 전하고자 함.

② (나) - 임금의 건강을 염려하고 임금을 그리워 함.

③ (다) - 자신과 임금이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함.

④ (라) - 임금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알리고자 함.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각 단락의 계절적 배경과 시적 화자의 행동·소망을 연결하여 연군의 정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군지정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염려하며 충성을 드러내는 마음이다. 이 작품에서는 봄의 옷, 여름의 서늘한 기운, 가을의 밝은 빛, 겨울의 매화처럼 계절별 소재를 통해 그 마음을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에서 화자는 원앙금에 수를 놓아 임금의 옷을 지어 보내려 한다. 손수 마련한 옷을 임금에게 전하려는 행동에는 자신의 정성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다.
② O — (나)에서 화자는 임금이 있는 곳의 더위를 염려하며 맑고 서늘한 기운을 바람에 실어 보내고 싶어 한다. 이는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자신과 임금이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함'이다. (다)에서는 북극성을 임금에 빗대어 바라보며 그리워하고,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기를 소망한다. 올바르게는 '임금을 그리워하며 임금의 밝은 덕과 은혜가 온 세상에 두루 미치기를 바람'이다.
④ O — (라)에서 화자는 추위 속에 핀 매화를 꺾어 임금이 계신 곳에 보내고자 한다. 매화의 지조와 절개를 통해 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알리려는 마음이 나타난다.

오답 포인트

③의 '긴 밤을 고초 앉아'와 임금을 상징하는 북극성을 바라보는 장면만 보고 임금과 함께 있고 싶다는 소망으로 확대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다)의 직접적인 소망은 밝은 빛이 깊은 산골까지 온 세상에 두루 비치는 것이므로 임금의 선한 영향과 은혜가 널리 미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락에서 화자가 실제로 하는 행동과 마지막에 드러내는 소망을 먼저 찾고, 선지가 그 대상을 바꾸거나 의미를 과장하지 않았는지 대조한다. 특히 상징물은 주변의 서술어와 결합하여 의미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봄에는 옷으로 정성을 전하고, 여름에는 임금의 더위를 염려하며, 가을에는 밝은 은혜가 온 세상에 미치기를 바라고, 겨울에는 매화로 충절을 전한다.

NoteBase

문 16.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 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 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① 모닥불을 함께 쬐며 개인적 삶을 긍정하고 있다.
② 감각적이고 토속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③ 1연과 2연은 동일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3연에서 불행한 가족사와 민족사를 접목시키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어의 성격, 반복 구조, 모닥불의 상징적 의미, 개인사와 민족사의 연결을 종합하여 작품의 내용과 표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시의 모닥불은 온갖 사물을 태우고 신분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모닥불을 함께 쬐는 장면은 개인적 삶보다 공동체적 삶과 화합을 드러낸다. 마지막 연은 할아버지의 불행한 가족사를 '슬픈 역사'로 제시하여 그 고통을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으로 확장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개인적 삶을 긍정하고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 재당, 초시, 더부살이 아이, 나그네, 주인, 할아버지, 손자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모닥불을 쬐는 모습은 공동체적 삶과 화합을 긍정한다. 올바르게는 '모닥불을 함께 쬐며 공동체적 삶을 긍정하고 있다'이다.
② O — '새끼오리', '헌신짝', '소똥'과 같은 구체적 사물 및 '갓신창', '개니빠디', '너울쪽', '재당', '갓사둔', '몽둥발이'와 같은 토속적 어휘를 사용하여 생생하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③ O — 1연은 타는 사물을, 2연은 불을 쬐는 사람과 동물을 '~도'로 잇달아 열거한다. 두 연 모두 반복과 열거라는 동일한 구조로 시상을 전개한다.
④ O — 3연은 할아버지가 부모 없는 아이로 자라 '몽둥발이'가 된 개인적·가족적 불행을 '슬픈 역사'라고 표현한다. 이를 통해 한 가족의 고통을 민족 공동체가 겪은 역사적 아픔과 연결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함께'라는 말에만 주목하면서도 그 의미를 '개인적 삶'으로 잘못 규정한 데 있다. 여러 존재가 차별 없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의 핵심은 개인성이 아니라 공동체성과 포용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설명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에는 선지의 추상어를 시의 구체적 장면과 대응시킨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두' 같은 불을 쬐면 공동체적 화합으로, 개인의 불행을 '역사'라고 부르면 개인사에서 민족사로의 확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모닥불은 차이를 넘어 모두를 품는 공동체의 공간이며,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는 개인사와 민족사를 잇는다.

NoteBase

문 17. 시어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 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 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① ㉠: 가죽신의 밑창
② ㉡: 아버지의 사촌 형제
③ ㉢: 새 사돈
④ ㉣: 딸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백석의 「모닥불」에 쓰인 토속적 시어의 정확한 뜻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작품의 시어에는 옛말과 방언, 친족어가 섞여 있다. '재당'은 '재종', 곧 자신과 육촌 관계인 형제를 뜻하며,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뜻하는 말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갓신창'은 가죽신의 바닥에 대는 창, 즉 가죽신의 밑창을 뜻한다.
② X — '아버지의 사촌 형제'라는 풀이가 틀렸다. '재당'은 '재종', 곧 자신과 육촌 관계인 형제를 뜻한다.
③ O — '갓사둔'은 새로 사돈 관계를 맺은 사람, 즉 새 사돈을 뜻한다.
④ O — '몽둥발이'는 딸려 붙어 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을 뜻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아버지의 사촌 형제'는 화자를 기준으로 한 친족 관계를 한 세대 위로 잘못 옮긴 표현이다. '재당'을 익숙한 친족어인 '당숙'과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선 시어는 형태만 보고 추측하지 않고 작품에서 쓰인 사전적 의미를 대응시킨다. 친족어는 누구를 기준으로 몇 촌인지까지 확인하면 '재당'과 '당숙'을 구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갓신창은 가죽신 밑창, 재당은 재종·육촌, 갓사둔은 새 사돈, 몽둥발이는 몸뚱이만 남은 물건이다.

NoteBase

문 18. 이 글과 주제 면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가)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기를,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흠모하였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하니, 북곽 선생이 옷깃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경’을 읊었다.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 반짝반짝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은 / 어느 것을 모형 삼아 만들었나?”
그러고 나서
“이는 흥(興)이로다.”
하였다.
다섯 아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예기(禮記)’에 과부의 집 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고 했는데, 북곽 선생님은 현자가 아니신가.”
“정나라 도읍의 성문이 허물어진 곳에 여우가 굴을 파고 산다더라.”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 이는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 ……(중략)……

(나) 이에 다섯 아들들이 함께 에워싸고 공격하니,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大人)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라)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諛)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① 붉가벼슨 兒孩(아해) ㅣ 들리 거믜줄 테를 들고 긔川(천)으로 往來(왕래)ᄒᆞ며,
붉가숭아 붉가숭아 져리 가면 죽ᄂᆞ니라. 이리 오면 ᄉᆞᄂᆞ니라.
부로나니 붉가숭이로다.
아마도 世上(세상)일이 다 이러ᄒᆞᆫ가 ᄒᆞ노라.

NoteBase

② 宅(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황화 그 무엇이라 웨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장) 아스슥 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사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하렴은.

③ 靑天(청천)에 뜻는 기러기 혼 雙(쌍) 漢陽城臺(한양성대)에 잠간 들러 쉬여 갈다.
이리로셔 져리로 갈 제 내 消息(소식) 들어다가 님의게 傳(전)ᄒᆞ고 져리로셔 이리로 올 제 님의 消息(소식) 드러 내손ᄃᆡ 브듸 들러 傳(전)ᄒᆞ여 주렴.
우리도 님 보라 밧비 가는 길히니 傳(전)ᄒᆞᆯ 동 말 동 ᄒᆞ여라.

④ 두터비 푸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ᄃᆞ라 안자
것넌 山(산) ᄇᆞ라보니 白松骨(백송골)이 써 잇거ᄂᆞᆯ 가슴이 금즉 ᄒᆞ여 풀덕 쒸여 내ᄃᆞ다가 두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ᄂᆞᆯ랜 낼싀망정 에헐질 번ᄒᆞ괘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모순된 행동을 통해 위선적인 인간과 부조리한 세태를 풍자하는 작품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시문 「호질」은 도덕과 예의를 내세우던 북곽 선생이 욕망을 좇아 과부의 집에 드나들고, 위기에 처하자 범에게 아첨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겉으로는 고결한 척하지만 실제 행동은 비굴하고 부도덕한 위선자를 풍자한 작품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벌거벗은 아이가 벌거숭이를 꾀어 잡으려는 장면을 인간 세상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한다. 그러나 제시문처럼 한 인물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과 비굴함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작품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약자가 또 다른 대상을 꾀어 해치는 세상사의 모습을 풍자한 작품이다.
② X — 게의 생김새와 움직임을 한자어로 장황하게 묘사한 뒤 '게젓'이라는 일상어로 결말을 맺어 웃음을 유발한다. 위선적인 인물에 대한 풍자가 아니라 게의 외형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언어유희가 중심이다.
③ X — 기러기에게 임의 소식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위선적 인간에 대한 풍자가 아니라 임과 떨어진 화자의 애틋한 연모가 중심이다.
④ O — 두꺼비는 파리에게는 강한 척하지만 매를 보자 놀라 달아나고, 넘어진 뒤에는 자신이 날래서 위기를 피한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두꺼비의 모순된 태도를 풍자한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고결한 척하면서 위기에서는 비굴하게 아첨하는 북곽 선생을 풍자한 제시문과 주제가 가장 유사하다.

오답 포인트

①도 세태 풍자의 성격이 있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를 때에는 풍자라는 공통점만 보지 않고, 약자에게는 거만하면서 강자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인물의 이중성과 허세까지 대응하는 ④를 선택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제 유사성 문제에서는 먼저 제시문의 대상과 비판 내용을 압축한다. 이 글은 '위선적인 인물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풍자'이며, 선지에서도 풍자 대상과 행동의 모순이 함께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북곽 선생과 두꺼비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큰소리치지만 강자나 위기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위선과 허세이다.

NoteBase

문 19. (가)~(라)에 나타난 상황을 한자 성어로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기를,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흠모하였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하니, 북곽 선생이 옷깃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경’을 읊었다.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 반짝반짝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은 / 어느 것을 모형 삼아 만들었나?”
그러고 나서
“이는 흥(興)이로다.”
하였다.
다섯 아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예기(禮記)’에 과부의 집 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고 했는데, 북곽 선생님은 현자가 아니신가.”
“정나라 도읍의 성문이 허물어진 곳에 여우가 굴을 파고 산다더라.”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 이는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
……(중략)……

(나) 이에 다섯 아들들이 함께 에워싸고 공격하니,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大人)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라)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諛)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① (가) - 表裏不同

NoteBase

② (나) - 命在頃刻
③ (다) - 巧言令色
④ (라) - 櫛風沐雨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작품 속 인물의 행동과 처지를 한자 성어의 뜻에 맞게 연결하는 문제이다. 북곽 선생의 위선, 위급한 처지, 아첨은 각각 표리부동·명재경각·교언영색과 연결되지만, 즐풍목우는 고생을 무릅쓰고 분주히 돌아다닌다는 뜻이므로 (라)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핵심 개념

表裏不同(표리부동):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마음이 서로 다름을 뜻한다.
命在頃刻(명재경각): 목숨이 매우 위태로워 금방이라도 죽을 듯한 처지를 뜻한다.
巧言令色(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빛으로 남에게 아첨함을 뜻한다.
櫛風沐雨(즐풍목우):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비로 목욕한다는 뜻으로,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른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에서 북곽 선생은 겉으로는 덕망 높은 현자인 체하지만 과부인 동리자의 집에 밤중에 들어간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모습이므로 表裏不同과 어울린다.
② O — (나)에서 북곽 선생은 다섯 아들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똥 구덩이에 빠지고, 다시 범에게 길까지 막힌다. 목숨이 당장 위태로운 상황이므로 命在頃刻과 어울린다.
③ O — (다)에서 북곽 선생은 범에게 살아남기 위해 범의 덕과 위엄을 과장하여 칭송한다. 교묘한 말로 비위를 맞추는 아첨이므로 巧言令色과 어울린다.
④ X — 틀린 표현은 '(라) - 櫛風沐雨'이다. (라)는 범이 북곽 선생의 면전 아첨과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꾸짖는 장면이지, 북곽 선생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풍우를 무릅쓰며 고생하는 장면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라) -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첨하는 북곽 선생의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나)와 (라)에도 북곽 선생이 곤경을 겪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櫛風沐雨를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櫛風沐雨의 '고생'은 목적을 위해 풍우를 무릅쓰고 분주히 애쓰는 수고를 가리킨다. (라)의 중심은 고생이 아니라 범이 폭로한 아첨과 위선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성어의 막연한 분위기보다 장면의 핵심 행동과 처지를 먼저 잡는다. 겉과 속의 불일치는 表裏不同, 생명이 눈앞에서 위태로운 처지는 命在頃刻, 말과 표정으로 아첨하는 태도는 巧言令色, 풍우를 무릅쓴 분주한 고생은 櫛風沐雨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표리부동은 위선, 명재경각은 위기, 교언영색은 아첨, 즐풍목우는 풍우 속 수고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① ㉠: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② ㉡: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보여 준다.

③ ㉢: 삶의 터전을 빼앗기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④ ㉣: 난쟁이 가족의 어려운 삶의 형편을 보여 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표현을 인물의 태도, 소망, 상황 인식, 생활 형편과 연결하여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학 작품의 구절은 앞뒤 문맥과 인물의 말투를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반감은 강한 부정과 항변에서, 희망은 현실과 대비되는 소망에서, 예상 여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반응에서, 생활 형편은 구체적인 음식이나 주거 묘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에서 사람들은 아버지가 난쟁이라는 사실만 옳게 보았을 뿐 그 밖의 것은 모두 옳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가족의 모든 것과 목숨까지 걸고 이를 말할 수 있다는 표현은 아버지와 가족을 왜곡해 보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② O — ㉡은 비참한 현실을 '지옥',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 세계를 '천국'에 비유한다.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생각했다는 말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보여 준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이다. 어머니의 '기어코 왔구나',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라는 말은 철거 계고장이 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올바르게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이다.
④ O — ㉣의 보리밥, 까만 된장, 시든 고추 두어 개, 조린 감자는 매우 소박하고 빈약한 식사이다. 이를 통해 난쟁이 가족의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 형편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오답 포인트

③의 '기어코'는 뜻밖의 일을 처음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상하며 염려하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어머니가 놀라기보다 체념하듯 반응한다는 점도 이미 철거를 예상했다는 근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만 떼어 보지 않고 앞뒤의 반응어와 반복 표현을 확인한다. '기어코', '이제 나온 셈'처럼 예상의 실현을 뜻하는 말이 있으면 '예상하지 못했다'는 해석은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기어코 왔구나'는 갑작스러운 발견이 아니라 우려하던 철거가 결국 닥쳤다는 체념의 표현이다.

NoteBase